

# 순천시 장애인 333명에 맞춤형 일자리

40억 투입... 지난해보다 33명 늘려

일반·복지·특화형 등 4개 분야

경제적 자립 기반·사회참여 지원

순천시는 2026년 장애인일자리사업을 확대 추진해 전년 대비 37명 증가한 총 333명의 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적극 지원한다.

이번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총 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일반형 ▲복지형 ▲특화형 ▲전남형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등 4개 분야로 운영된다.

먼저, 일반형 일자리에는 52명이 장애인행정도 우미로 참여해 시정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행정업무를 보조한다. 복지형 일자리에는 235명이 참여해 환경정비 활동과 장애인 주치구역 계도 업무를 수행하며, 지역사회 환경개선과 질서 확립에 기여할 예정이다.

특화형 일자리로는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서비스에 8명이 참여해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등에서 어르신들에게 안마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에는 18명이 참



순천시는 지난해 보다 37명 증가한 333명에게 올해 장애인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 개최한 장애인일자리사업 교육.

여해 요양보호사를 지원하며, 고령자와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돋는다.

이와 함께 전남형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에는 20명이 참여해 장애인 차별 예방 교육, 연극 및 문화예술 활동 등을 통해 장애인식 개선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순천시는 이번 장애인일자리사업을 통해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당당한 일원으로서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공동체 참여 확대와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이 동등한 사회적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보다 품질 있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여수시가 국동항에 장기 방치 선박과 불법 적치물에 대한 정비에 나섰다.

## 여수시, 국동항 장기 방치 선박 정비 칼 빼다

폐자재·어구도 고발 조치 등 추진

여수시가 전국 1위 국가 어학인 국동항의 장기 방치 선박과 불법 적치물에 대한 일제 정비에 나선다.

국동항은 수년간 다수의 장기 방치된 선박이 접

안되어 어선 접안 공간이 부족해지는 등 어항 본래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 또한 폐자재와 폐어구 등 각종 불법 적치물이 장기간 방치되어 미관을 해치고 있는 실정이다.

선발된 서포터스는 청년 창업 사업장을 직접 취재해 콘텐츠를 제작하고, SNS를 통해 홍보하는 활동을 하게 되며, 콘텐츠 제작 실적에 따라 월 최대 10만 원의 활동 지원금을 받게 된다.

/고흥=주각증 기자 gjju@kwangju.co.kr

였으나 실효성이 부족함에 따라 전수조사와 자진 계도기간을 거친 후 국동항 내 불법 적치물이나 무단 접유 행위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 원상회복명령, 행정대집행 등을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적치물이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국동 항 내 확보된 아직 공간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수년째 방치된 선박과 무단 적치물로 인해 어항 기능이 소외되고 미관이 저해되는 등 어민들의 불편이 기증되고 있다”며, “신속한 정비추진을 통해 어항 환경을 개선해 나갈 예정인 만큼 어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 광주문화신협 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 본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

## 보성군-담양군 공직자, 고향사랑 교차 기부

군민 전반 기부 문화 확산 기대

보성군과 담양군 공직자들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지역 간 상생 발전을 위해 교차 기부에 동참했다.

보성군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차(茶)의 고장으로, 청정 자연환경과 친환경 농업을 기반으로 한 우수한 농수산물을 생산하며, 벌교꼬막을 비롯한 다양한 특산물과 풍부한 문화·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담양군은 대나무 숲과 메타세쿼이아길로 널리 알려진 생태·관광 도시로, 전통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전남의 대표 힐링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교차 기부는 두 지역의 공직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됐으며,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를 실천하고 지자체 간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공직사회가 먼저 참여함으로써 군민과 국민 전반으로 기부 문화 확산을 이끄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성군 관계자는 “이번 담양군과의 교차 기부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의미를 되새기고, 지역 간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는 뜻깊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와 이벤트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성군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새해 복 더하기 신년 이벤트’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이벤트는 보성군에 10만 원 이상 고향사랑기부를 한 기부자를 대상으로 하며, 추첨을 통해 총 100명에게 네이버페이를 지급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 지자체에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자는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 특산물 등 담수품을 받을 수 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

## 구례군, 다문화가족 국제우편 요금 지원한다

구례우체국과 업무협약



구례군이 지난 26일 구례우체국과 ‘다문화가족 국제우편(EMS) 요금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번 협약은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고국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돋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라남도 내 지자체 중에서는 구례군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구례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며, 올해 총사업비 500만 원 규모 내에서 약 5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비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지원 가구는 횟수에 상관없이 연간 10만 원 한도 내에서 국제우편(EMS)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은 구례우체국을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를 신청하고 물품을 발송하면 된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이번 지원사업이 다문화가족들이 고향에 계신 가족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구례군은 올해 신설된 국제우편 요금 지원사업 외에도 ▲다문화가족 고국 방문 지원 ▲자조 모임 지원 ▲어울림 한마당 행사 외에도 10여 개의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며 다문화 포용 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

## 광양시, 국·도비 건의, 공모 사업 발굴 보고회

광양시가 지난 27일 ‘2027년 국·도비 건의사업 및 2026년 공모·시상사업 발굴보고회’를 개최하고, 재정 확보를 위한 사전 점검과 사업 발굴에 나섰다.

이번 보고회는 국·도비로 건의할 사업과 정부 공모·시상사업을 체계적으로 발굴·점검하고, 사업별 추진 가능성과 재정 영향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7년도 국·도비로 건의할 사업은 총 164건 2617억 원 규모(총사업비 2조 7449억 원)로, 이 가운데 신규사업은 45건 262억 원, 계속사업은 119건 2355억 원이다. 2026년 공모·시상사업은 총 87건 886억 원 규모로, 이중 공모사업 53건 876억 원, 시상사업 34건 10억 원으로 구성됐다.

국·도비로 건의할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스타트업파크 구축(총사업비 287억 원)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전면화로 준설(총사업비 4057억 원, 정책건의) ▲광양항 북극항로 구축 실증사업(총사업비 450억 원, 정책건의)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광양 분원 유치(총사업비 100억 원, 정책건의) 등이 포함됐다.

공모·시상사업 분야에서는 ▲백운산 발효촌 동치미마을 조성사업(총사업비 133억 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총사업비 100억 원) ▲우리동네 살리기사업(총사업비 83억 원) 등이 응모 예정 사업으로 검토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